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개발

박정희(朴貞姬)* · 심혜숙(沈惠淑)**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을 밝히고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잠재적 변인과 각 변인의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문항들을 개발 및 수집하였다. 4명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게 한 후 두 차례의 예비검사와 이에 대한 통계적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본검사를 완성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51문항의 6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동일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 하위요인의 명칭을 긍정적 자기인식,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자기 주장성, 학습 주도성으로 명명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NNFI, CFI, RMSEA 지수가 .93, .95, .06으로 나타나 본 검사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93, 하위요인별 Cronbach α 값은 .66~.89였으며, 문항-요인상관과 문항-전체상관이 모든 문항에서 .30이상이었고, 문항 제거시 요인 신뢰도 및 전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아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그들의 주요 생활영역인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척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 주요어 :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 제 1저자 : 부산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상담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문제발생 이후의 해결 지향적 접근보다 문제의 예방과 성장 및 발달을 지향하는 접근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지적은 정신건강의 증진이 반드시 병리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룸으로써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목표 지향적인 긍정적인 정서를 다룸으로써 마찬가지로 접근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증상의 없음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김중술, 2004), 심리치료의 목표는 단순한 증상이 제거 혹은 문제의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적 성숙과 자아실현을 포함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을 지향하는 데에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이장호,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치료적 개입의 성공여부는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는 데 있다기보다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달려 있으며, 인간의 안녕감(well-being)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치료라고 할 수 있다(Frank, 1973, 1982).

최근 심리학계에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즉 긍정적 정서와 강점에 대해 연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된 관심을 갖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계발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그것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심리치료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의 장점을 기르는 것이며, 강점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긍정적 관점이 여러 가지 문제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약물남용, 비행, 십대 임신 등 청소년 병리의 치료에 관한 것에서부터 점차 인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긍정심리학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안녕감(well-being)에 관한 논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재홍, 조기영, 2003;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임지영, 2003; 김혜원, 김명소, 2000; 박은아, 2003; 이주일, 2004; 차경호, 2004; 채선애, 한성열, 2002; 홍기원, 2001; 홍기원, 전방지, 차경호, 2001). 초기 안녕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자신이 처한 객관적 조건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여겨 수입, 주거상태, 건강, 신체적 조건 등 표준화된 객관적·인구 사회적 변인들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이란 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지표들은 정작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회과학자들 특히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Andrew & Withey, 1976; Campell, 1976; Cantril, 1965).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happiness)이라는 다양한 용어로 이름 붙여져 진행되어 왔다.

그 동안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쾌락적 관점과 행복론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Ryan & Deci, 2001). 쾌락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삶의 질이란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의미하는 것이다(Diener, 1984). 이에 반해 행복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덕(virtue)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진정한 행복이란 단순한 쾌락적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고 보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01; Ryff, 1989; Ryff & Keyes, 1995; Ryff & Singer, 1998). 심리적 안녕감의 대표적인 연구자 Ryff(1989)는 쾌락적 관점에서 연구된 주관적 안녕감이 지나치게 삶의 질을 단순화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복론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제시하였고, 이후 이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의 개성화, Allport의 성숙, Eri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 그리고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고, 이것이 측정하는 삶의 질을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하였다. 이들 6개의 차원은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말한다.

삶의 질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 객관적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국내의 삶의 질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개인의 삶의 질, 즉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전신현, 1996).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 연구들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들이었고(이훈구, 1997; 조명환, 차경호, 1998), 그 이후에는 Ryff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요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임지

영, 2003; 김혜원, 김명소, 2000).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Ryff(1989)의 6차원 모델은 우리나라 성인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하위차원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혜원, 김명소, 2000) 성인이 아닌 청소년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아직 명확치가 않다. 김혜원과 김명소(2000)의 연구에서 20~40대의 기혼여성들에게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자아수용,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및 개인적 성장이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의 연구에서는 젊은 층의 경우 자아수용과 개인적 성장 및 환경통제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대인관계와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하위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이 성인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본래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6개 요인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주요 생활영역인 학교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척도개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 내담자가 특히 어떤 측면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1차 예비검사 시기

2006년 12월 중순, U광역시에 소재한 1개의 중학교에서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 중 1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이 된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고, 1학년 2학급 70명과 2학년

1학년 35명으로 총 105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것을 제외하고 10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2차 예비검사 시기

2007년 2월 초순, U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중·고등학교에서 10개 학급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수업 중 2차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이 된 학생들은 중학교 5학급, 인문계 고등학교 2학급, 실업계 고등학교 3학급이었다.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신뢰성이 의심된 47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303명(남 130명, 여 17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을 소속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153명, 인문계 고등학생 64명, 실업계 고등학생 86명이었다.

3) 본 검사 시기

2007년 2월 중순, 예비검사를 통해 최종 완성된 본 검사를 U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중·고등학교 10개 학급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수업 중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신뢰성이 의심된 26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324명(남 138명, 여 18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을 소속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159명, 인문계 고등학생 69명, 실업계 고등학생 94명이었다.

2. 자료 분석

1)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1차 예비검사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4명의 전문가들에게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1점: 전혀 적절하지 않음, 5점: 매우 적절함)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평가 기준은 문항의 내용이 각 하위요인의 정의에 적합한가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한가였다.

2) 문항분석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문항의 기술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에 의한 단변량 정상분포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문항-총점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을 추출하고 요인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원 자료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을 실시하였다.

4) 확인적 요인분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 공분산 행렬자료를 자료로 사용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NNFI와 CFI 및 RMSEA 지수를 사용하였다.

3. 척도 개발 절차

1) 구인의 조작적 정의

구인의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탐색과 기존의 관련 검사들의 분석을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현재의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 정의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을 <표 1>과 같이 세 가지 차원의 9개 변인일 것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본 검사의 개발 의도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맞는 심리적 안

<표 1>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잠정적 구성개념

차원	요인명칭	구성내용
대인관계	가족관계	· 가족 혹은 부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지각 정도
	친구관계	· 친구와의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 및 상호신뢰의 정도
	교사관계	· 교사와의 편하고 가까운 관계 및 상호신뢰와 존중의 정도
심리내적	자아수용성	· 자신의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도
	자율성	·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인 특성
	환경통제력	· 환경을 관리하고 외적 행동 계획을 조절하는 능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 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갖고 있는 정도
	개인적 성장	· 계속적으로 발달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
학교적응	수업적응	· 수업상황에 대한 올바른 수용과 적절한 대처의 정도

녕감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있었으므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구성개념과 모든 문항들을 일단 잠정적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에 포함시켰다.

2) 예비검사의 문항 개발 및 수집

예비검사의 문항 개발 및 수집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정의내린 구인의 개념에 맞게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련 검사들에서 정의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다. 이때 각 요인별로 2배수 이상의 문항들을 표집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 또는 수집된 문항들은 총 201문항으로 가족관계 23문항, 친구관계 24문항, 교사관계 20문항, 자기수용성 25문항, 자율성 23문항, 환경통제력 23문항, 삶의 목적 21문항, 개인적 성장 20문항, 수업적응 22문항이었다.

3)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한 1차 예비검사 제작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①문항의 내용이 각 하위요인의 정의에 적합한가 ②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를 기준으로 '매우 부적절함'에서 '매우 적절함'까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육학 박사 2명과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었다. 내용적합성과 이해도에서 어느 한 평정자라도 3점 이하로 평정한 문항들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담심리전문가 1명의 검토과정을 거쳐 전체 131문항의 1차 예비검사가 제작되었다. 1차 예비검사의 각 요인별 문항 수는 가족관계 15문항, 친구관계 15문항, 교사관계 13문항, 자기수용성 16문항, 자율성 14문항, 환경통제력 13문항, 삶의 목적 15문항, 개인적 성장 13문항, 학교수업적응 17문항이었다.

4) 1차 문항분석 및 문항추가를 통한 2차 예비검사 제작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추출된 131개의 문항을 1차 예비검사로 제작하여 남자 중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중순에 해당 학교 교과담당 교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기술 통계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하여 분포의 정상성을 탐색하는데 고려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양철기, 2006에서 재인용). 첫째, 평균(M)은 분포의 집중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해당 자료의 중앙값에 근접하는 수치여야 한다. 둘째, 표준편차(SD)는 분포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적당한 값을 가져야 하며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 셋째, 왜도(Skewness)는 한

분포의 모양이 좌우대칭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왜도 ± 2'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넷째, 첨도(Kurtosis)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왜도와 마찬가지로 '첨도 ± 2'를 분석 기준으로 삼는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로서 득점의 범위가 1점~4점이므로 위의 분석 기준을 참고로 문항별 평균이 1.75~3.25점 사이에 있는 문항들만 남기고 나머지 문항들은 제거하였다. 또한 표준편차가 1.0을 벗어나거나 왜도와 첨도의 범위가 -2~+2를 벗어난 문항들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통계치 분석과 함께 문항-총점간 상관분석도 실시하여 상관계수가 .30이하인 문항들은 모두 제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양호한 문항인데 문항분석 기준에서 근소한 차이로 벗어나 있는 문항의 경우에는 2차 문항분석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남겨두었다. 1차 문항분석 과정을 통해 남은 문항의 수는 모두 55개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1단계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9개 요인보다 많은 수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하위요인별 문항수의 차가 크고 문항수가 극히 적은 요인도 있어 새롭게 문항을 추가하여 2차 예비검사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5) 2차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본 검사 제작

(1) 2차 문항분석

2차 예비검사는 총 96문항으로 가족관계 13문항, 친구관계 11문항, 교사관계 11문항, 자기수용성 13문항, 자율성 11문항, 환경통제력 8문항, 삶의 목적 10문항, 개인적 성장 9문항, 수업적응 10문항이었다. 2차 예비검사는 중·고등학교 10개 학급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수집된 30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차 문항분석에서도 1차 문항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치 분석과 문항-총점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문항 선별을 위해 1차 문항분석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2차 문항분석에서는 첫째, 문항별 평균이 1.75~3.25점 사이에 있고 둘째, 표준편차가 1.0을 넘지 않으며 셋째, 왜도와 첨도가 -1~+1을 벗어나지 않는 문항들만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항-총점간 상관 값도 .35이상인 문항들만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은 전체 문항 수는 총 51개였다.

(2) 문항추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2차 문항분석 후 남은 51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객관적인 검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타당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본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이 도구에 담겨있는 요인구조를 파악하여 각 요인의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를 가지고 주성분분석과 사교회전을 실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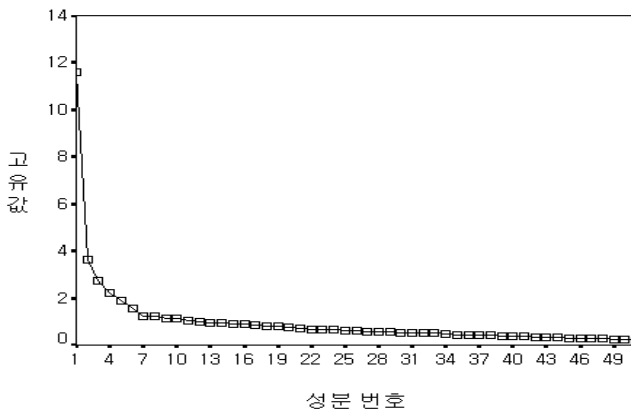
였다.

① 유효 요인수와 문항 결정의 기준

유효한 요인수와 문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스크리 도표에서 급경사 지점에 있는 요인,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효한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둘째, 요인계수가 .4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되, 단일 차원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만 .40이상이고 다른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들은 .40 미만인 문항만 유효문항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한 요인에 부하되는 최소 문항 수에 대한 기준은 학자에 따라 3~5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박도영, 2000), 본 연구에서는 문항수가 최소한 3개 이상인 요인들만 최종적인 요인구조인 것으로 정하였다. 넷째, 하나의 요인 이상에 .4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은 요인이 순수하지 못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문항은 제거하였다.

② 요인의 고유치와 설명분산 비율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별 고유치와 설명분산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요인추출모형으로 주성분분석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이 방식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구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김계수, 2006). 그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11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제시한 스크리 도표에서 급경사 지점은 요인 6과 요인 7 사이였고, 요인 7부터는 문항수가 3개 이하로 극히 적어 요인수를 6개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림 1] 스크리 도표

③ 사교회전 후 최종 요인구조

사교회전은 직각회전과 유사하나 요인사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직각회전과 달리 요인사이의 상관성을 허용하는 회전방식이다(김계수, 2006). 본 검사의 요인들 간에도 상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Direct Oblimin 방식에 의해 요인 축을 회전시켰다. 사교회전 후 최종 요인구조에서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만 .40 이상이고 다른 요인들에 대한 요인계수는 .40 미만인 문항들만 확인한 결과 51개의 문항 모두 유효 문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2>는 사교회전 후 산출된 51개 문항에 대한 최종 요인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표 2> 사교회전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4	.61	-.15	-.14	-.26	-.22	.12
20	.61	-.31	-.35	-.20	-.21	.10
13	.59	-.24	-.25	-.30	-.24	.20
27	.59	-.27	-.19	-.09	-.12	-.19
24	.58	-.24	-.27	-.30	-.14	.04
31	.58	-.27	-.19	-.09	-.08	.27
15	.56	-.19	-.19	-.20	-.09	.30
35	.53	-.29	-.36	-.22	-.35	.07
11	.52	-.29	-.24	-.32	-.11	-.15
14	.52	-.17	-.24	-.26	-.40	-.09
28	.50	-.25	-.27	-.31	-.21	.23
33	.48	-.08	-.10	-.22	-.41	.22
6	.12	-.77	-.14	-.23	-.13	.10
36	.31	-.73	-.26	-.21	-.12	.02
8	.19	-.72	-.20	-.27	-.05	.14
16	.30	-.72	-.25	-.10	-.03	-.06
17	.24	-.71	-.27	-.16	-.16	.09
45	.24	-.69	-.18	-.12	-.30	.15
12	.27	-.68	-.22	-.16	-.13	-.17
40	.19	-.67	-.21	-.25	-.24	.10
26	.19	-.66	-.23	-.22	.02	.04
3	.16	-.63	-.09	-.07	-.30	.02
29	.25	-.60	-.18	-.20	-.20	.08
21	.36	-.53	-.29	-.14	-.29	-.14

<표 2> - 계속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48	.21	-.27	-.74	-.27	-.12	-.03
39	.29	-.18	-.74	-.23	-.22	.21
47	.12	-.15	-.71	-.16	-.09	.05
50	.17	-.25	-.69	-.17	-.10	.36
32	.33	-.18	-.69	-.23	-.34	.16
44	.18	-.14	-.67	-.22	-.08	.07
38	.28	-.19	-.63	-.21	-.15	.09
22	.26	-.27	-.62	-.18	-.01	.00
5	.22	-.30	-.55	-.23	-.41	-.12
51	.14	-.28	-.50	-.25	-.47	.27
10	.21	-.16	-.16	-.72	-.14	.04
25	.32	-.19	-.29	-.68	-.17	.14
2	.15	-.20	-.16	-.68	-.16	.06
18	.26	-.26	-.23	-.68	-.13	.00
23	.20	-.18	-.22	-.62	-.28	-.20
34	.37	-.23	-.32	-.57	-.38	-.21
41	.28	-.26	-.25	-.55	-.41	.14
43	.19	-.12	-.23	-.49	-.04	.28
19	.29	-.19	-.20	-.24	-.74	.11
1	.26	-.22	-.12	-.12	-.70	.12
30	.27	-.26	-.32	-.30	-.68	.07
9	.15	-.26	-.16	-.49	-.58	.05
7	.09	-.19	-.44	-.41	-.45	.12
46	.47	-.21	-.25	-.25	-.16	.56
42	.32	-.18	-.44	-.25	-.25	.56
49	.23	-.24	-.37	-.16	-.28	.55
37	.34	-.28	-.16	-.11	-.33	.46
고유치	6.26	7.51	6.89	5.49	4.59	2.24
설명변량	11.20	9.27	7.94	6.98	6.21	4.60
누적변량	11.20	20.48	28.41	35.39	41.60	46.19
문항수	12	12	10	8	5	4

(3) 요인의 해석 및 명명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을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문항들과 비교해 보면, 우선 자신의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은 물론 취약점까지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에 관한 문항보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관한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에서 평정자들이 청소년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는 피드백 했던 Ryff(1989)의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관련 문항들은 결국 독립된 요인을 구성하지 못하고 다른 요인들 속에 중복되어 나타났다. 그 대신 목표나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

들과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반영시키는 것과 관련한 문항들이 새로운 요인을 구성하였다. Ryff(1989)의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은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 성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요인 1: 긍정적 자기인식

요인 1에 부하된 12개의 문항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한 문항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삶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처음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 자신의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은 물론 취약점까지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성'으로 정의하였으나 요인 해석 결과 자기수용보다는 자기인식에 가까운 문항들로 요인이 구성되어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4. 나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생활한다
- 20. 나는 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3.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즐겁다
- 27.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 24.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날마다 조금씩 노력한다
- 31. 나는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 15. 한번 세운 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실행하는 편이다
- 35.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
- 11. 미래를 생각하면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 14. 나에게서 나 나름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 28.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33.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요인 2: 가족관계

요인 2에 부하된 12개의 문항들은 모두 가족과 관련된 문항들로 '가족 혹은 부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지각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문항들이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인 것이다. 따라서 요인 2를 조작적 정의대로 '가족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6. 우리 가족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관심을 보여준다
- 36. 부모님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다
- 8. 부모님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

- 16.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 17.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내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 45. 우리 집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 12. 부모님에게는 내가 닳고 싶은 부분이 있다
- 40. 우리 가족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 26.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화난 점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 29. 우리 가족은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하곤 한다
- 21. 가족들을 기쁘게 할 나만의 방법이 있다

요인 3: 교사관계

요인 3에 부하된 10개의 문항들은 모두 교사 및 학급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교사와의 편하고 가까운 관계 및 상호신뢰와 존중의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문항들이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인 것이다. 따라서 요인 3을 조작적 정의대로 ‘교사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3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48.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39. 선생님과 나는 서로 잘 통하는 것 같다
- 47. 예전보다 선생님과 관계가 더 편해졌다
- 50.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내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 32.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
- 44.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계신다
- 38.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공부 외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 22. 선생님은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 5.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하게 이야기한다
- 51. 학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요인 4: 친구관계

요인 4에 부하된 8개의 문항들은 모두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들로 ‘친구와의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 및 상호신뢰의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도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문항들이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인 것이다. 따라서 요인 4를 조작적 정의대로 ‘친구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4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10.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 기분을 이해해주고 바꿔주려고 한다

- 25. 내 친구들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2.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 18.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 23. 나는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 편이다
- 34. 나는 평소 활기에 넘치고 의욕적이다
- 41.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3.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잘 지켜준다

요인 5: 자기 주장성

요인 5에 부하된 5개의 문항들은 의사표현과 관련된 문항들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반영시키는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원래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것은 아니나 독립의 욕구가 커지는 청소년기 발달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의 내용이 자기 주장적 표현이나 적극성과 관련이 많아 '자기 주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19. 다른 사람과 의논할 때 내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편이다
- 1.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반영시키는 편이다
- 30. 학급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을 반영시키는 편이다
- 9. 학교에서 놀이나 회의를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 7. 나는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요인 6: 학습 주도성

요인 6에 부하된 4개의 문항들은 학습과 자기절제와 관련된 문항들로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정도'를 묻고 있다. 이 요인은 원래 이론적 탐색을 통해 구안된 것이 아니나 학생으로서 실제적인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인으로 묶인 내용이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관련된 문항들이 많아 '학습 주도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에 부하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 46. 마음먹은 대로 학습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 42. 나는 자율학습 시간을 잘 활용한다
- 49.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다
- 37.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편이다

(4)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요인간 상호상관

요인분석을 통해서 동일 요인이라고 묶여진 문항들을 합산하여 전체 문항과의 상호상관을 분석해 보았다. 상호상관은 각 구인에 의해서 얻어진 점수와 총점과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만일 특정 구인을 나타내는 점수와 심리적 특성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그 구인은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성태제, 200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은 <표 3>과 같다. 하위요인 간 상호상관이 $p < .001$ 수준에서 .36 ~ .54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요인들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요인간 상관

요인 명칭	1	2	3	4	5	6	7
긍정적 자기인식	-	.46***	.47***	.52***	.46***	.54***	.80***
가족관계		-	.38***	.36***	.36***	.36***	.75***
교사관계			-	.41***	.46***	.50***	.75***
친구관계				-	.51***	.37***	.69***
자기 주장성					-	.43***	.66***
학습 주도성						-	.65***
심리적 안녕감(총점)							-

*** $p < .001$

III. 연구결과

1. 본 검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결정된 51문항 6요인 구조가 대상을 달리했을 때에도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요인의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시 공분산 행렬자료를 자료로 사용하여 최대우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1) 모형평가 기준

구조방정식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여 최적 모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들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다. 각 적합도 지수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자신의 이론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적합도 지수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인 χ^2 , NFI, NNFI(또는 TLI), CFI, GFI, AGFI, RMSEA 중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대체로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는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NNFI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고,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RMSEA는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집오류를 이용해 구해지므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Bandalos, 1997; McDonald & Marsh, 1990), 공식에 자유도도 포함되므로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NFI와 CFI의 경우 그 값이 대개 0에서 1.0 사이에 결정되며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지만, RMSEA의 경우는 그 값의 하한선은 0이고(값이 음수로 나오면 0으로 간주함) 상한선은 제한되지 않으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각각 나타낸다(홍세희, 2000 재인용; Browne & Cudeck,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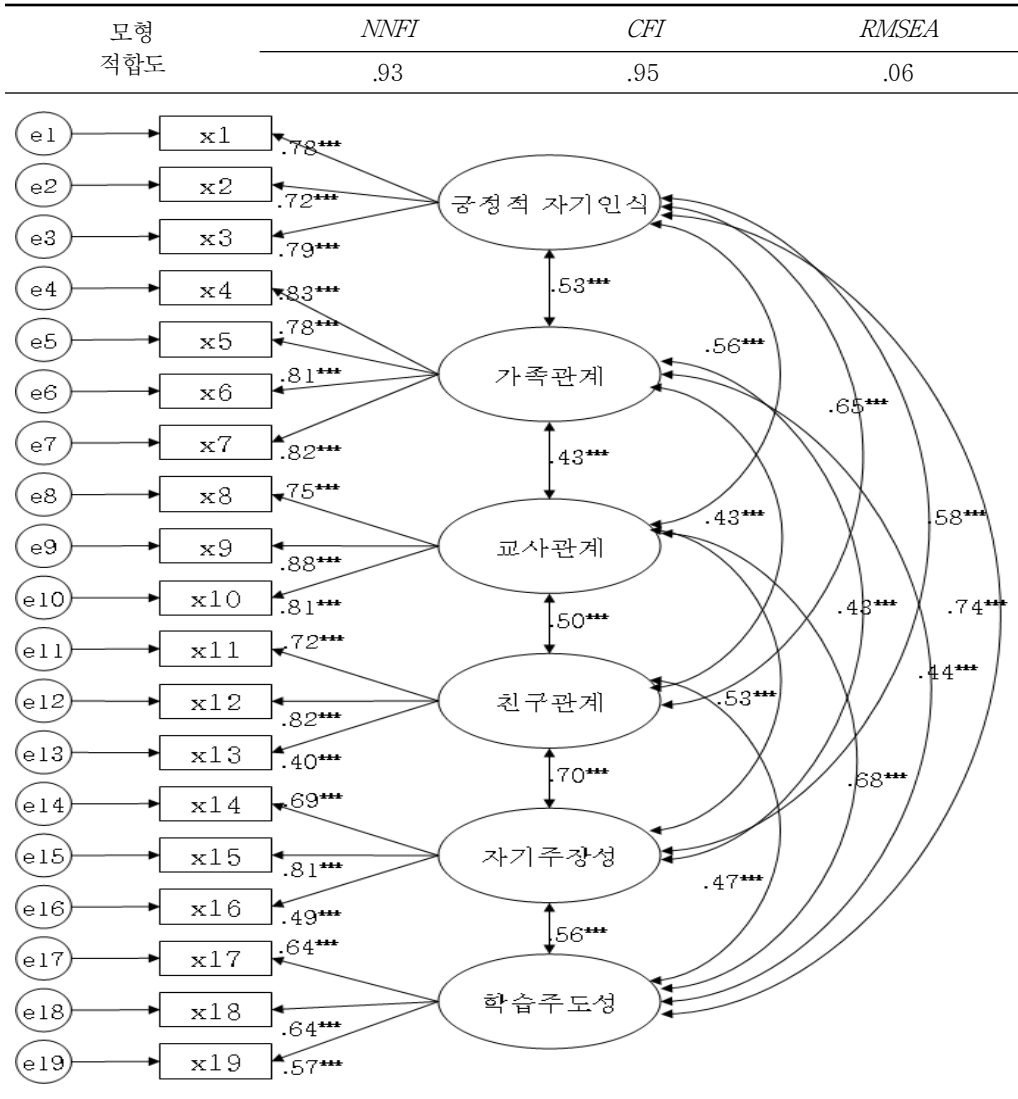
2) 모형탐색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51문항 6요인 구조를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탐색하기에는 문항수가 너무 많아 대단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각 요인 안에서 좀 더 관련성이 있는 문항들끼리 묶어 총합을 구한 다음 이것을 측정변수로 한 모형을 탐색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확인하기 위해 알아본 NNFI 값(.93)과 CFI 값(.95)은 모두 .90 이상이므로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으며(Schumacker & Lomax, 1996), RMSEA 값(.06)은 .08 이하이므로 적합도가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그림 2]는 모형의 적합도뿐 아니라 요인부하량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부하량은 측정변수에 의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적합도 지수로서 일반적으로 $\lambda > .45$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수용하는 범위가 된다(양철기, 2006). [그림 2]의 경로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개의 측정변수에 의한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은 .40~.88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즉, X13 변수의 요인부하량(.40)을 제외하고는 모두 .45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측정변수에 의한 잠재변수가

잘 설명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도형¹⁾

1) $x_1=(v_{42}+v_{53}+v_{57}+v_{60})/4$, $x_2=(v_9+v_{20}+v_{25}+v_{30})/4$, $x_3=(v_{27}+v_{65}+v_{69}+v_{71})/4$, $x_4=(v_{23}+v_{31}+v_{33})/3$,
 $x_5=(v_{17}+v_{72})/2$, $x_6=(v_{45}+v_{55}+v_{86})/3$, $x_7=(v_6+v_{13}+v_{61}+v_{79})/4$, $x_8=(v_{85}+v_{90}+v_{91})/3$,
 $x_9=(v_{12}+v_{48}+v_{78}+v_{93})/4$, $x_{10}=(v_{67}+v_{76}+v_{94})/3$, $x_{11}=(v_4+v_{19}+v_{36}+v_{54})/4$, $x_{12}=(v_{51}+v_{70}+v_{80})/3$,
 $x_{13}=v_{83}$, $x_{14}=(v_2+v_{39})/2$, $x_{15}=(v_{18}+v_{62})/2$, $x_{16}=v_{14}$, $x_{17}=(v_{74}+v_{88})/2$, $x_{18}=v_{81}$, $x_{19}=v_{92}$

3) 문항 간 상관 및 신뢰도 분석

본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단일차원으로 확인된 6개 요인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계산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해 분석하였다(Gable & Wolf, 1993). 첫째, 요인 내 '문항 간 상관계수 > .30' 및 요인별 '신뢰도 계수 > .70'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항-요인상관'과 '문항 제거시 요인신뢰도'를 검토하였다. 문항-요인상관이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반면에 문항 제거시 요인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문항이 아니다. 셋째, 부수적으로 검사전체의 신뢰도와 '문항-전체상관', '문항 제거시 전체신뢰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첫째와 둘째에 준한다.

<표 4>에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 및 전체 신뢰도 계수와 문항-요인상관과 문항-전체상관 및 문항 제거시 요인신뢰도와 문항 제거시 전체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요인들의 신뢰도는 .66~.89사이에 있으므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요인상관과 문항-전체상관 분석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상관계수가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문항 제거시 요인신뢰도와 전체신뢰도 모두 높아지지 않아 이들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요인별 및 전체 신뢰도

문항번호	문항-요인상관	문항 제거시 요인신뢰도	문항-전체상관	문항 제거시 전체신뢰도
요인 1: 긍정적 자기인식($\alpha = .82$)				
4	.50	.80	.39	.93
20	.49	.80	.51	.93
13	.51	.80	.49	.93
27	.45	.80	.36	.93
24	.49	.80	.44	.93
31	.46	.80	.39	.93
15	.43	.80	.38	.93
35	.49	.80	.51	.93
11	.43	.81	.42	.93
14	.45	.80	.42	.93
28	.46	.80	.46	.93
33	.42	.80	.35	.93
요인 2: 가족관계($\alpha = .89$)				
6	.67	.88	.46	.93
36	.65	.88	.53	.93
8	.63	.88	.49	.93
16	.65	.88	.47	.93
17	.65	.88	.51	.93
45	.61	.88	.49	.93
12	.61	.88	.46	.93

<표 4> - 계속

문항번호	문항-요인상관	문항 제거시 요인신뢰도	문항-전체상관	문항 제거시 전체신뢰도
40	.60	.88	.50	.93
26	.57	.89	.43	.93
3	.56	.89	.39	.93
29	.54	.89	.45	.93
21	.49	.89	.48	.93
요인 3: 교사관계($\alpha = .86$)				
48	.61	.84	.50	.93
39	.66	.84	.52	.93
47	.59	.84	.38	.93
50	.62	.84	.46	.93
32	.62	.84	.53	.93
44	.54	.85	.40	.93
38	.54	.85	.44	.93
22	.53	.85	.42	.93
5	.49	.85	.48	.93
51	.46	.85	.48	.93
요인 4: 친구관계($\alpha = .80$)				
10	.54	.77	.36	.93
25	.56	.76	.46	.93
2	.53	.77	.36	.93
18	.56	.77	.43	.93
23	.52	.77	.37	.93
34	.49	.78	.49	.93
41	.49	.78	.48	.93
43	.36	.79	.31	.93
요인 5: 자기 주장성($\alpha = .72$)				
19	.55	.64	.43	.93
1	.49	.67	.37	.93
30	.56	.64	.49	.93
9	.50	.67	.42	.93
7	.33	.74	.44	.93
요인 6: 학습 주도성($\alpha = .66$)				
46	.45	.59	.43	.93
42	.49	.56	.46	.93
49	.45	.59	.42	.93
37	.39	.63	.38	.93
요인 1~6 전체($\alpha = .93$)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주요 생활영역인 학교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다.

척도개발 결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은 성인이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비문항의 개발 및 수집 과정에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6개 요인을 모두 예측변인으로 가정하고 모든 문항을 예비문항에 포함시켰으나, 내용 타당도 검증과 두 차례에 걸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제거되어 버렸다. 또한 성인용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의 하위요인이었던 삶의 목적, 자율성, 환경지배력 및 개인적 성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독립된 요인이 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에 청소년기 발달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사관계, 자기 주장성, 학습 주도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새로운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관련된 문항들은 학습과 관련된 요인 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학습 주도성으로 새로운 요인명칭을 부여하였고, 자신의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은 물론 취약점까지 사실대로 인정하는 자기수용보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가까운 문항들이 한 요인을 구성하여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명명되었으며, 긍정적 대인관계는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요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 도구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요인구조와 다르게 긍정적인 자기인식,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자기 주장성, 학습 주도성이 구성개념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척도보다 청소년의 독립에 대한 욕구와 친구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 그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개념에 보다 적합한 척도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요인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은 가족 및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고(이경남, 김경호, 류기형, 문선화, 홍봉선, 2000), 특히 친구관계가 중요하며(Dorothy, Anna, & Mara, 2001),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유능감(Diener, 1984; Emmons & Diener, 1985; Evans et al., 1993),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교사의 관심과 지

원, 학업성취도 등(Mok & McDonald, 1994; Williams & Batten, 1981)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6개 요인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인과 달리 긍정적인 자기인식, 가족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자기 주장성, 학습 주도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둘째,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통해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반영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척도는 삶의 질의 높고 낮음을 한 개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실제적 기능을 하는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Ryff, 1989)는 관점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척도는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성장 및 발달 지향적 관점에 입각한 검사 도구로서 의의가 있다. 정신건강의 증진은 반드시 병리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다룸으로써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목표지향적인 긍정적인 정서를 다룸으로써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일 도시에 소재한 소수의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이었다. 표집이 성별, 소속, 학년별로 고루 분포되지 않았고, 학군이나 성적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1차 예비검사의 실시과정에서 대상의 선정 및 표본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함에 따른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예비검사 단계이기는 하나 1차 예비검사에서는 남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문항수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인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예비검사 단계에서부터 연구대상의 표집에 있어 일관성을 기하고 표본의 크기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공통분산 값이 적어도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요인까지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김계수, 2005). 본 연구에서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모두 11개였으나 스크리 도표에서 크게 꺾이는 부분과 문항수가 3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요인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본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에도 불구하고 총분산 중 누적분산이 46.19%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공통분산 값이 높아 정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인의 타당성 확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본 척도를 수정·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재홍, 조기영 (2003). 청소년의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166-181.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743-770.
- 김계수 (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기형 (200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중술 (2004). 임상심리학과 행복추구. 2004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 1.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박도영 (2000). 학구적 지·정·의와 성취도의 인과구조분석.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성태제 (2003).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철기 (2006).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습양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이경남, 김경호, 류기형, 문선화, 홍봉선 (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1), 9-49.
- 이장호 (1986).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이주일 (2004).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29.
- 이훈구 (1997). 행복한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48. 서울: 집문당.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채선애, 한성열 (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31.
- 홍기원 (2001). 대학생들의 성차의식이 성과평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37-152.
- 홍기원, 전방지, 차경호 (2001).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73-187.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Y: Plenum.
- Bandalos, D. L. (1997). Assessing sources of error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effects of sample size, reliability, and model mis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 177-19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orothy, M., Anna, B. D., & Mara, B. (2001). The quality of adolescents' friendships: Associations with mot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ttachments to parents and friends,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5(3), 275-286.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Evans, J. R., Pellizzari, B. J., Culbert., & Metzen, M. E. (1993). Personality, marital and occup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477-485.
- Gable, R. K., & Wolf, M. B.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Measuring attitudes and values in corporate and school setting*. Boston, MA: Kluwer

Academic.

- McDonald, R. P., & Marsh, H. W. (1990). Choosing a multivariate model: Noncentrality and goodness of fit. *Psychological Bulletin*, *107*, 247-255.
- Mok, M. C., & McDonald, R. P. (1994). Quality of school life: A scale to measure student experience or school climat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483-495.
- Ryan, R. M., & Deci, E. L. (200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5*, 68-7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Williams, T. H., & Batten, M. H. (1981). *The quality of school life*. ACER Research Monograph, *12*. Hawthorn Australia: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논문접수 2007년 8월 18일 / 1차 심사 2007년 9월 6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20일 / 3차 심사 2007년 12월 5일 / 4차 심사 2007년 12월 20일

* 박정희: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를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및 심리학과 등에서 강의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영역은 청소년상담 및 학교상담, 상담자 양성교육 등이다.

* e-mail: smileangel0405@yahoo.co.kr

* 심혜숙: 미국 Kansas Newman University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St. Louis University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활동에는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판 개발과 초·중등 및 성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 e-mail: sim0585@hanmail.net

Abstract

Development of a Psychological Well-Being Inventory of Adolescents

Park, Jung-Hee* · Sim, Hae-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Inventory(APWI). The 201 initial items were selected for the first preliminary inventory. The number of items was reduced to 131 items through performance of a content validity analysis. A two-stage data analysis was then conducted. First, the data of 105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and item-total correlations. The number of items was reduced to 55. The 2nd preliminary inventory, which contained 96 items, was conducted using 3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tem-total correlation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final inventory was made, having 51 items and six scales. Six scale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Inventory were positive perception of self (12 items), family relationship (12 items), teacher relationship (10 items), friend relationship (8 items), self-assertion (5 items), and learning thoroughness (4 items). The data of 32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in order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inal inventory. The results found was that the reliabilites (Cronbach's α) of six scales ranged from .66 ~ .89, and the default model was fit because it had NNFI(.93), CFI(.95), RMSEA(.06) from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us, this inventory demonstrates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validity. Therefore, it is an appropriate measurement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es a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ventory

* Part-time teach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